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과징금 부과대상 신설 등 불공정 하도급 제재 강화

공정위, 경고 조치와 함께 필요시
과징금 부과

하반기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확대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고시를 9월 다시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을 명백히 하는 한편 경고조치를 받더라도 필요시 가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면미교부,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대금지급보증 의무위반 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또 과거 1년간 범위반 실적(시정명령 이상)이 있거나 과거 3년간 별점누계가 4점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또 하반기부터 협력네트워크를 본격 가동, 상습적인 범위반업체에 대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공동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상습적인 범위반 업체명단을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조달청, 금융감독원, 중기청 등에 통보하고 입찰참가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주거나 대출

금리 조정 등의 별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원·하도급 상생 매뉴얼 나온다

건교부, 재무·기술·교육 등
협력방안 담아

발주기관, 원·하도급자, 감리자 등 건설사업 각 주체들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매뉴얼이 오는 10월 발간된다.

건교부는 지난 3월 말부터 18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산업 상생협력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발주자, 원·하도급업체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재무, 기술, 교육지원 등 상호협력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재무지원 면에서는 공시기성에 대한 현금지급 촉진, 선금지급 확대, 기성금 조기지급방안 마련, 재무건전성 수시 점검 등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된다.

또 기술지원 촉진책으로는 자체 품질관리회의, 해당 분야별 세미나 개최, 우수시공사례 발표회 등 원·하도급자간의 기술교류 증진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공사관련 합동기술팀 운

영과 하도급자 기술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기술협력 강화방안도 모색된다.

건교부는 9월 말까지 12개 기관에서 상생협력 촉진방안을 수렴한 후 10월 이를 총정리한 종합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발주기관, 원·하도급업체들의 상생협력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법제화도 병행 검토한다는 게 건교부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상생 매뉴얼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하되 실천이 미흡할 경우 아예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의 상생 시범사업 중간점검 결과 우수 사례로는 △모든 기성금에 대해 청구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 지급한 한진중공업 △기성대금을 14일 이내 현금지급한 금호산업, 명지건설, 성지건설, VSL 코리아 △하도급사 자금력을 고려해 자재를 일괄 구입, 적기에 공급한 임광토건 △하도급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접지역과 조화를 극대화하는 공사시행방안을 수립한 고려개발 △주5일근무에 따른 하도급사 손실을 원도급사 직원 및 감리원 휴일 배치로 지원한 임광토건 △하도급자에게 주로 전가되는 민원처리 업무를 적극 협력해 처리한 계룡건설산업 등이 꼽혔다.

쓰레기자동처리시설 설치 확산

경기도, 성남 판교 등 신도시 대상

| 판교 신도시를 비롯해 고양 삼송, 김포 장기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이 도입된다.

경기도는 최근 환경위생과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쓰레기를 자동 수집·처리하는 신개념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은 아파트부터 중앙집하장까지 지하에 직경 400~600mm의 관로를 매설하고 아파트마다 투입구를 설치한 뒤 지하 매설 관로에 흐르는 시속 60~70km의 공기를 이용, 각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를 중앙집하시설로 운반해 종류별로 직접 소각장에 투입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 최종 처리장까지 운송해 처리하는 신개념의 처리시스템이다.

경기도는 생활수준을 향상으로 환경 및 위생, 쾌적성에 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쓰레기 수거도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개념의 도시 기반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집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2003년 경기개발연구

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 운영할 경우 경제성과 편리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 등 고밀도 주거형태의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김포 장기, 용인 흥덕,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지구 등 신도시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 장기와 용인 흥덕은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성남 판교는 실시설계 중이며 고양 삼송은 곧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향후 건설되는 모든 신도시에 자동집하시설의 확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첨단화된 폐기물 수거시스템이 도입되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전역사 2010년까지 ‘스크린도어’ 설치

서울시,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

서울시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맑은서울시민위원회'와 '맑은서울연구단'을 신설해 '맑은서울추진본부'와 함께 3자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맑은

서울추진본부가 실내 공기오염이 심각한 지하철 1호선을 시작으로 오는 2010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전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시는 이를 위해 시 예산을 스크린도어 설치에 투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스크린도어 설치는 민자유치를 하거나 지하철공사 재원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목영만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은 "1기 지하철 가운데 1,2호선과 환승역에 우선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오는 2010년까지 242개 지하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하라 - 톨레랑스

우리 사회를 두고 '톨레랑스'가 없다는 한탄을 많이 한다. '톨레랑스(tolerance)'는 '참다, 견디다'라는 라틴 어에서 온 말로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의 홍세화 씨가 우리나라에 알렸다.

원래 톨레랑스는 종교에 대한 군주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남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개인적 정신 자세를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었다. 즉 '다른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홍세화 씨는 책에서 "프랑스 사회는 톨레랑스가 있는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정이 흐르는 사회라면 프랑스 사회는 톨레랑스가 흐르는 사회입니다."라고 말했다.

홍세화 씨는 '프랑스적인 톨레랑스'의 예로 드골 대통령과 샤르트르의 일화를 들었다.

알제리 독립 운동이 한창일 때 샤르트르는 스스로 알제리 독립 자금 전달책으로 나섰다. 당시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

이 알제리인들의 독립 지원금이 들어 있는 돈 가방의 전달 책임자를 지원한 것이다. 경찰의 감시를 피해 국외로 빼돌린 자금은 알제리인들의 무기 구입에도 쓰일 돈이었으므로 그의 행위는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당연히 샤르트르를 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골 대통령 측근들의 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드골은 간단히 대꾸했다.

"그냥 놔두게. 그도 프랑스야."

이 일화의 주제는 드골 대통령이 비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또 샤르트르가 건드리면 큰일 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이기 때문도 아니다.

드골의 이런 생각은 보통 프랑스인들의 보통의 사고방식, 즉, 프랑스 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톨레랑스였던 것이다. 이런 톨레랑스의 힘이 프랑스를 개성과 독창성이 지배하는 분화 강국으로 만들었다.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토론과 설득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톨레랑스…… 이제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었으면 한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